

로동계급의 과학기술인재화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선차적요구

림 송 화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을 실현하는데서 로동계급을 과학기술인재화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의 과학기술인재화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로동계급을 과학기술인재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합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본질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로동계급부터 과학기술인재화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과학기술인재화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선차적요구로 나서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로동계급이 경제강국건설의 주력부대, 선봉부대이기때문이다.

로동계급은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인 공업전선을 담당하고있다.

공업은 농업과 함께 인민경제 2대부문의 하나이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공업부문에서 생산적양양이 일어나야 경제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기계들과 영농물자를 제때에 생산보장할수 있으며 인민생활향상에도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결국 로동계급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따라 경제강국건설의 승패가 좌우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은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이다.

오늘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이다.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는것이다.

우리가 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경제문제를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인민의 자주정신과 창조정신, 과학기술의 위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이 지향하는 경제강국은 최첨단과학기술에 토대한다.

경제발전이 인력이나 자원의 소유정도에 의하여 규정되던 공업경제시대와는 달리 오늘에 와서는 지식이 경제발전수단, 채부축적수단으로 되며 국력의 기본요소로 되고있다.

오늘날 로동계급은 과학기술을 틀어쥐지 못하면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된 일터의 참된 주인이 될수 없으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선봉부대, 주력부대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할수 없다.

모든 생산공정이 수자화되고 첨단과학기술과 현대적인 기계수단들에 의하여 생산이 진

행되는 오늘날 어제날과 같이 망치로 두드려 만들거나 순수 인력이나 손재간으로만 해결하려 하여서는 절대로 통할수 없게 되어있다. 오직 인재화된 로동계급만이 모든것이 과학과 기술, 첨단기술수단들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현대산업을 관리운영해나갈수 있고 우리 당이 내세운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수 있다.

한편 로동계급에게는 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전형으로 될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있다.

공장, 기업소단위로 진행되는 생산활동의 특성,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현대화, 정보화가 급격히 높아지는 공업발전의 현실, 배운 지식을 실천을 통하여 공고히 하며 생산활동에 즉시 구현해나갈수 있는 직업적인 특성은 농민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학기술인재화를 빨리 실현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마땅히 경제강국건설의 선봉부대, 주력부대인 로동계급부터 과학기술인재화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과학기술인재화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선차적요구로 나서는것은 다음으로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온것이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전통이기때문이다.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우리 혁명의 년대기마다에는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고 대중적기술혁신으로 당의 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하여온 우리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이 아로새겨져있다.

우리 로동계급은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시기를 비롯하여 매 시기마다 당과 수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영웅적로동계급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새 조국건설시기 우리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 빈터우에서 부강조국건설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화의 나날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공장대학에서 배우며 전시생산과 전시수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에 이바지하였고 전후복구건설시기에는 산악같이 일떠서 기존공식을 타파하고 천리마의 대고조를 안아왔으며 로동당시대의 전성기를 펼쳐놓았다.

우리 로동계급은 제국주의반동들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인민군대가 창조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강계정신을 창조하였고 련이어 성장의 봉화, 라남의 봉화를 지펴올렸으며 강선의 봉화, 함남의 불길이 온 나라에 거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에 의하여 조국땅 방방곡곡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되였다. 오늘 우리 조국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경제제재와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우주과학기술과 핵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쥔 존엄높은 강국의 지위에 올라설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로동계급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자력자강의 정

신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받들어 만리대공에 주체위성을 쏘올리고 건설의 대변영기로 우리 인민의 웃음꽃을 만발하게 피워가며 하늘에는 우리 비행기, 땅속에는 우리 지하전동차가 기세차게 달리게 한 주인공들, 황철의 주체철, 천지운활유, 천리마타일, 금킵식료품도 현대화이자 국산화라는 당정책옹위로 안아올린 애국자들이 다름아닌 우리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다.

우리 혁명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무궁무진한 창조적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든든한 도약대를 마련하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온 여기에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와 년대를 이어 오직 우리 당만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로동계급을 과학기술인재화할 때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제낄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로동계급의 과학기술인재화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선차적요구로 나서는것은 다음으로 현대과학기술을 배우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하루빨리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려는것이 우리 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이기때문이다.

과학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며 비상한 정신력으로 한치한치 뚫아오르고 점령해 나가야 할 자주적 길, 혁명의 길이다.

우리 로동계급이 지닌 강한 정신력은 최단기간내에 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할수 있는 위력한 추동력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은 마땅히 세상에서 가장 강대하고 존엄높은 나라로 빛을 뿌려야 한다는 민족적자존심과 자력자강의 의지를 심장마다에 만장약한 우리 로동계급이 점령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우리 로동계급이 만들어내는 모든것에는 조선의 기상, 조선의 속도, 조선의 힘이 맥동치고있다. 자기의것이 제일이고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자강력제일주의가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간직되어있고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뭉쳐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주의위력을 높이 떨쳐나가고있는 우리 로동계급이 있는 한 첨단과학기술의 요새도 반드시 점령해나갈수 있다는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의 견결한 수호자들인 우리의 로동계급이 지닌 비상한 정신력이다.

현대과학기술을 배우고 과학기술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힘과 기술로 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로동계급의 지향과 의지는 오늘 그 어느때보다도 강렬해지고있다.

많은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들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현실에서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하고있으며 컴퓨터망을 통하여 인민대학습당과 중앙과학기술통보사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홈페이지들을 열람하면서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들과 생산관련기술자료들을 학습하고있다.

오늘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고 최신과학기술을 습득하는것은 어느 공장, 어느 단위에서나 볼수 있는 보편적현상으로 되었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과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도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현대화된 공장, 기업소들에서 우리의 로동계급은 최신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설비들도

자유자재로 다루고있으며 새 기술의 발명가, 창조자가 되어 생산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현대과학기술을 배우고 활용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속에서 우리의 로동계급은 높은 기술과 특수설비가 없이는 생산해낼수 없다고 하던것들도 자체로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고있으며 로동자창의고안명수들과 발명가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과학기술을 배우고 경제를 발전시켜도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가는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어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려는 우리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 드높은 열의와 강한 자존심이야말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서 로동계급이 앞장에 서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현실은 로동계급의 과학기술인재화에 선차적힘을 넣을 때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곧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로 되며 로동계급이 과학기술인재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누구나 기초과학지식을 습득한것으로 만족하거나 이미 배운 지식에 머무를것이 아니라 첨단과학기술지식, 핵심기초기술지식을 포함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잘 알아야 하며 특히 자기 부문의 과학기술에 정통하고 맡은 임무를 과학적원리와 방법에 의거하여 창조적으로, 능률적으로 수행하는것과 함께 끊임없는 새 기술의 창조와 발명으로 생산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높은 자질을 지녀야 한다.

우리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감으로써 이 땅위에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